

## 서갑원(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1차 구술

1. 구술자: 서갑원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박성수
4. 구술일자: 2012년 2월 21일
5.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
6. 구술분량: 07분 0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sup>1)</sup> 설립과정

구술자 : 그럼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무엇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또 정치를 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뭘 할까? 구심오(95)년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지방자치를 완성, 즉 자치단체장을 국민들이 선출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완성되는 해인데 지방자치밖에 더 있냐? 최고의, 앞으로 이(2), 삼(3)년 사이에 가장 큰 중심 이슈는, 중요한 과제는 지방자치다. 그래서 ‘그래? 그거 해야지 뭐’, 간단해요. ‘그거 해야지 뭐.’ ‘그래서 지방자치연구소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열개를 만들죠. 기획안을. 그렇게 하고 뭐 고민을 길게 가지도 않아요. 대통령님한테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서린빌딩 바로 앞에 하남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제법 크게 근 신평수 한 사십(40)몇 평, 오십(50)평 가깝게 큰 사무실입니다. 바로 계약하고

그리고, 그러면 연구소 이름은 뭘로 할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지방자치, 지방자치연구소. 뭐 간단하지. 지방자치연구소 그러면 되지 뭘. 뭐 복잡하게 이름을 뭐라고 질 거야. 지방자치하자는 건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어른이 그 실무 두 글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 쪽팔리게 뭐 꾸질꾸질하게 실무는 윈 실무입니까. 그 실무를 하더라도 그냥 실무를 하더라도 그냥 실무를 하더라도 연구소 뭐 지방자치연구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논문 쓰는 연구소라고 아무도

---

1) 1993년 2월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9월 28일 출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고 지방화시대의 개발전략을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실무연구소로 기능했다. 1998년에는 자치경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자치경영연구원은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당선으로 대부분의 연구원이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소멸됐다.

생각 안합니다. 그냥 우리가 실무할 건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품 나가 해서 그냥 지방자치연구소하면 실무까지 다 포함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한정해서 축소시켜 놓니까. (그랬더니) 이름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이름부터 분명해야 된다는데 뭐. 아 그거 오랫동안 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남들한테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가 지방자치의원들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그 사람들이 부족, 혹시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해서 도와 주고 서포트(support)해주고 또 같이 팀 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실무적으로 예산 뭐 예산분석이나 또 시정,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것들 실무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고 또 같이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런 것들 도와 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실무를 지원해주는 연구소다. 그러니 실무라고 그래야지 왜 불분명하게 그걸 뺄라 그러냐. 괜찮다. 좀,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러면 어떠냐. 그 무슨 상관이나. 명실상부하게 그리 가야지. 결국 우리가 포기. 포기하지 어쩌겠어.

그래서 이사장을 조세형 의원<sup>2)</sup>으로 하시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노 최고께서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조세형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또 그 전에도 그러셨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그렇고 민주당 합당을 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조세형 최고가 어떻게 보면 참 잘 하신다, 좋은 정치선배다, 정치를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서울시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바에는 조세형 최고를 이사장으로 모시자. 그렇게 조세형 최고(위원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소장을, 그러면 소장을 누가 할 꺼냐. 그래서 김병준 교수<sup>3)</sup>가 소장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가 쪽 조사를, 지역신문들, 지역 언론인들 또 시민단체, 또 동료 의원들 이런 사람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각 광역단위의 의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잘하는 의원들 중에서 이사, 감사 뭐 이렇게 또 쪽 리스트 업(List up)을 해서 그리해서 의원님께서 전화해주시거나 전화하시고. 저하고 이광재씨하고 이제 다니면서 만나고. 만나서 그분들 교섭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분들이 다 이사로 되셨는데 그 분들이 거의 다 단체장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되셨어요. 다 각, 자기 지역

2) 10대, 13~15대 국회의원. 1993년 9월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 당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14대, 서울 성동을)으로 1992년 2월~1995년 2월 최고위원, 1995년 2월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3) 당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994년에 출간한 저서 <한국지방자치론>(법문사)이 소장으로 초빙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2002년 대선, 재임기간 및 퇴임 후까지 노 대통령과 인연이 계속됐다.

에서 가장 열심히 또 시민들, 지역 사·도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또 개혁적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 늘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지방자치, 이 제도야말로 정치학교다, (정치)사관학교다. 그때 지방자치 오랫동안 단식투쟁 거치면서 이렇게 쟁취해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할 꺼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막 상기돼서 하셨던 말씀이 기업이 납니다만은 우리 연구소도 결국 그랬죠.

#### ■ 구술자 주요 이력

1962. 전남 순천 출생

1989.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2. 원외 정치인 노무현 비서로 정계입문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보좌 및 의전팀장

2003.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2008.05 제18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전남 순천)

2008. - 2011.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 - 20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0. - 20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 노무현의 비서로 인연을 맺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거쳐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과 이후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재임기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이 됐다.